

추 모 사

**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,
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, 맑고
향기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던
법정스님!**

**이 어지러운 오탁의 세상에서 아직도
스님의 맑은 가르침을 갈구하는 수많은
중생들을 두고 홀홀히 떠나신지 벌써
1년이 흘렀습니다. 때로는 나지막한
말씀으로, 때로는 벽력같은 사자후로
중생의 마음을 일깨워주신 스님!**

스님의 삶은 언제나 사부대중의 사표이셨습니다. 출가자에게는 수행자의 본분사가 어떠해야 하는지, 재가자에게는 청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 사회에는 청정의 메아리가 가득한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. 그러면서도 그 어느 것에 얽매이지 않고, 소유하지 않은 대자유인이셨습니다.

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'무소유'라는 불후의 명작도 남기셨습니다. 불자는

**물론 일반 독자들이 불교에 가까이
다가서게 만든 무소유는 우리 시대
최고의 불교 포교서라고 해도 과언이
아닙니다.**

**무소유의 가르침처럼 스님은 언제나
버리고 떠나셨습니다. 비우면 비울수록
새로 채워지고, 버리면 버릴수록
더 크게 얻어지는 것처럼, 모든 것을
버리고 떠나신 강원도 오두막에서
이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
채워 주셨습니다. 이제 그 주옥같은
말씀을 다시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**

아쉬운 마음이 가슴에 사무칩니다.

**스님은 언제나 '나는 누구인가.
스스로 물으라.'고 하셨습니다. 그것은
우리 모두에게 스스로의 진면목을
찾으라는 사자후이십니다. 이렇게
스스로의 진면목을 찾을 때 이 세상은
향기로운 메아리로 가득 찰 것입니다.**

**오늘도 우리 사부대중은 스님의
큰 덕화를 되새기며 이 땅을 맑고
향기롭게 만드는 일에, 세상과 대중을
일깨우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.**

**언제나 중생들을 일깨워 주셨던
법정스님!**

**하루 빨리 환도중생하시어 저희들을
일깨우는 영혼의 스승이 되어 돌아오소서.**

불기2555년 2월 28일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